

## 애드저스트, 광고해킹예방연합(CAAF) 총괄에 빌레 미콜라 임명

*모바일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채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CAAF를 통해 광고 해킹에 적극적으로 대응*

(서울, 2020년 3월 19일) – 글로벌 B2B SaaS 기업인 애드저스트(Adjust)는 최근 [CAAF](#)(Coalition Against Ad Fraud, 광고해킹예방연합)의 총괄책임자를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다. CAAF는 애드저스트가 모바일 광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차원에서 설립한 연합체이며, 빌레 미콜라(Ville Mikkola)가 책임자로 합류하게 된다.

광고 해킹은 마케팅 성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2019년 광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20억 달러(한화 약 52조 원)에 이른다. CAAF는 2017년 애드저스트가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설립한 연합체로,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해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CAAF 구성원들은 아래와 같이 협의된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동의한다.

- IAB 측정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 해킹 방지의 기술적 성과 구성
- 지연시간 가이드라인 준수
- 문제 해결에 관한 책임 소재 동의

애드저스트의 공동설립자 겸 CTO인 폴 뮐러(Paul H. Müller)는 "모바일 광고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광고 성과 해킹(performance ad fraud)은 광고주와 기업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며, "애드저스트의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돼 있으며, 정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해킹위험이 없는 안전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빌레 미콜라 총괄책임자가 애드저스트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임명을 통해 CAAF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CAAF는 현재 아이언소스(ironSource), 리프트오프(Liftoff), 탭조이(TapJoy), 크로스인스톨(CrossInstall), 벙글(Vungle), 모로코(Moloco), 잼프(Jampp), 애드콜로니(AdColony) 및 파이버(Fyber)와 같은 주요 광고 플랫폼을 비롯해 30개의 파트너로 구성돼 있다.

빌레 미콜라 선임 총괄은 독일 베를린 본사에서 CAAF의 전략 및 글로벌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미콜라 총괄책임자는 광고 테크 기업 근무 및 회사 경영을 통해 광고 해킹 예방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애드저스트 합류 전에는 광고 테크 기업 '글리스파'(Glispa)에서 네트워크 운영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예모비'(YeahMobi)에서 유럽 담당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NBC 유니버설의 협력사이자 최근 휴즈게임즈(Huuuge Games)에 인수된 캐주얼 게임 회사 '트레저헌트'(TreasureHunt)를 공동 설립한 바 있다.

###

### **애드저스트 소개**

애드저스트는 글로벌 B2B SaaS 기업이다. 모바일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시작해 기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애드저스트는 현재 전 세계 16 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드저스트의 플랫폼에는 모바일 측정, 광고 해킹 예방, 사이버 보안 및 마케팅 자동화 제품이 포함된다. 이 제품군은 애드저스트와 협력하는 32,000 개의 앱이 마케팅을 더욱 간단하고 현명하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xon, Pearl Abyss, Hyperconnect , Missha, Bluehole , Mobirix, Smilegate 및 Flerogames 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들이 애드저스트의 솔루션을 통해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애드저스트는 지난해 유럽 최대 규모인 2억 2,700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를 유치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adjust.com](http://www.adjust.com)) 및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ju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